Buddhanews.com

현대불교

제833호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음력 3월 25일 · 불기 2555년 · 주간)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온 세상을 얻는다.

- 순천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





하이테크 뮤지컬 '원효' 개막 하이테크 뮤지컬 '원효'가 4월 22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막을 올렸다. 뮤지컬 '원효'는 원효 대사와 요석 공주의 사랑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공연이다. 주인공 원효 역에는 가수 이지훈과 뮤지컬 배우 서지훈이 더블 캐스팅 됐다. 요석 공주는 KBS 남자의 자격 '하모니' 편에 출연한 선우와 뮤지컬 배우 김아선이 출연한다. 사진은 4월 21일 프레스콜 공연에서 서지훈과 선우가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시연하는 장면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MBC가 창사 50주년 특별기획으로 만든 이번 공연은 6월 12일까지 계속된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매일 8시간씩 2년 여 불사 회향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전재성 박사 '디가니까야' 완역



부처님의 전승된 가르침 가운데 가장 긴 크기의 경전을 모아놓은 경전모음집 〈디가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다. 〈디가니까야〉는 빠알리대장경의 경장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중요한 경전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전재성 박사(사진)는 최근 〈디가니까야〉를 국내 최초로 완역 · 발간했다. 전재성 박사는 1560쪽의 방대한 분량에 3000여 개가 넘는 상세한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한역경전에서 〈장아함경〉으로 알려진 초기 불교 경전인 〈디가니까야〉는 초기불교의 경전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율과 삼매와 지혜 즉, 계 · 정 · 혜 삼학의 논리에 따라 각각의 경들을 체계화시킨 경전이다. 〈디가니까야〉는 고타마 붓다의 열반 후 직속제자 500명이 칠엽굴에 모여서 경전을 결집할 때 가장 먼저 편집한 경전이기도 하다.

매일 8시간 씩 2년여에 걸쳐 번역작업에 몰두해 복원을 마친 전재성 박사는 "5월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디가니까야〉의 1/3분량의 압축본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발간 후 한글-빠알리어 사전편찬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불교계 외면에 외로운 '생협'

친환경공양미 사업 등 불자 참여 저조… 10년 째 성장 답보

생명평화와 우리 농업 발전에 대한 불교계의 낮은 인식이 생협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교계 생협은 우리 농업을 살리고 도 · 농 교류와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불교계 생협 중 가장 일찍 활동을 시작은 인드라망생협은 2004년 경부터 친환경공양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당에 올리는 공양미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쓰자는 운동이다.

이를 통해 불교계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소비하고 생협에 대한 사찰과 불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봉은사, 화계사, 길상사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사찰이 인드라망생협과 협약을 맺는데 그쳤다. 사업 초기에는 여러 사찰들이 관심을 갖고 협약에 참여했으나 이마저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공양미 사업은 현재 7곳의 사찰만이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다.

또한 불교계 대표적 생협들의 회원수도 이웃 종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웃 종교 생협 중 가장 활성화된 가톨릭의 경우 전국적으로 2만명의 조합원들이 생협의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중이다.

그러나 불교는 인드라망생협이 700여명, 대불청의 연꽃 생협이 340여명, 대전불교생협이 520여명 이다. 세 단체의 조합원을 모두 합쳐도 가톨릭 생협의 1/10 수준에 그친다.

종단에서는 올해 5대 결사 중 생명결사와 관련해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신도와의 적극적 연대 추진', '유기농산물 사용 적극 권장'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발표한 불교환경의제21에서도 '선농일치 이념 현실적 구현 방안 모색', '공양물은 유기농 또는 환경친화 생산물 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문서 속에서만 잠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생태생명이 미래 사회 최대 가치로 꼽히는 상황에서 각 지방마다 위치하고 있는 사찰들이 농촌과 연계하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 · 농 교류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생협의 취지는 온 우주가 한 몸, 한 생명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다.

이처럼 생협 활동에 대한 교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스님과 불자들의 낮은 관심에 대해 불교계 생협 관계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들은 제도적 지원책에 앞서 불교계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호 인드라망생협 이사는 "시중가격보다 다소 높아도 불교 생협의 가치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생협은 현재 씨앗을 틔우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섭 대전생협운영위원장은 "생협은 연기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다. 특히 지역불교생협을 통해 지역의 불자들이 교류하면 불교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

박기범 기자

한나라당 180일 만에 조계종 찾아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 조계사서 상생·화해 다짐 법회

한나라당 소속 불자 국회의원들이 4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통문화 수호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과 화해의 다짐 법회'를 봉행했다.

한나라당불자회(회장 이인기 의원) 소속 국회의원들은 조계종의 정치인 신행차원 출입 허가 이후 처음으로 서울 조계사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12월 8일 템플스테이 예산을 비롯한 전통문화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 이후 130일 만이다.

이날 법회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조계사에 제안해 조계사가 '개인 신행활동'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법회에는 한나라당불자회장 이인기 의원과 전 회장 이해봉 의원, 김무성 원내총무, 김학송, 조윤선, 이한성, 장윤석, 강길부, 강석천, 정태호, 안홍준, 조문환, 서병수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초 정부 여당 인사 출입을 거부하는 현수막과 게시물을 제거하는 등 입장변화를 보인 바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과는 만나지 않았다.

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2면

대만불교 통해 한국불교 진단한다

불광연구원, 30일 학술연찬회

대만 사회에서 사회 리더로 언론 문화 포교 복지 등 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만불교를 살펴보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진단하는 학술연찬회가 열린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만불교의 실천이념과 운영시스템'을 주제로 제1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제1차 연찬회에서는 대만불교의 역사와 계율정신, 운영시스템과 사회활동을 살펴본다. 행사에서는 양정연 동국대 교수가 주제발표 '대만불교의 성장 과정과 특징'을,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대만불교의 실천이념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다.

이어 서대원 충남대 연구교수는 '대만불자의 계율정신과 윤리의식'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대만 사찰의 재정 운영체계 및 불사 추진양태 연구'를, 박인석 동국대 연구교수는 '대만불교의 사회활동'을 주제발표한다.

불광연구원은 9월 10일 '대만불교의 인적구성과 리더십의 원천'을 주제로 제2차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한땀한땀 정성으로"

종무원 조합 여성부, 나눔실천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이 나눔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계종 종무원조합 여성부는 나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혜정 조계종 종무원조합 여성부 부장(사진)은 올해 초 친목 도모를 위해 뜨개질 강좌를 마련했다. 여성 종무원들이 함께 뜨개질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자리였다.

"뜨개질이 완성되자 친목활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미를 확대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뜨개질 한 것을 주변에 선물하고 그를 통해 모연을 하게 된 거죠."

여성부는 이렇게 모연된 성금 33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일상 속에서의 작은 활동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여성 종무원들의 마음은 뿌듯하기만 했다. 모연된 성금을 나눔활동에 쓰기로 하자 여성부 종무원들은 더 열심히 뜨개질에 몰입했다. 동행은 이렇게 마련된 성금을 성북구에 위치한 미혼모시설 '달빛둥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혜정 부장은 "이번 활동으로 취미나 친목 도모를 통해서도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833호 CONTENTS

도법 스님, 한나라당불자회 법문 2



32면 증면 본지에 바란다 조계종 미디어 특보 장적 스님 3



봉축 특집 미리 가본 연등회 11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등으로 활기...
법륜대 특징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좌우 상감청자 코끼리에 새길 설판자 명단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